

성인 지체장애인의 생활만족도 요인과 모바일 사회참여의 매개효과: 청장년 및 고령간 다중집단비교*

루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승현**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정석***

명지전문대학 조교수 전보영

【국문초록】

본 연구는 성인 지체장애인의 생활만족도가 디지털 역량,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디지털 조력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모바일 사회참여가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점검하였다. 또한 고령 및 청장년 간의 다중집단 비교연구를 통해 해당 기제가 성인집단 내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분석은 2020년 정보격차실태조사에 응답한 1399명의 성인지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고령 지체장애인은 청장년에 비해 디지털 역량,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디지털 조력, 모바일 사회참여, 생활만족도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 구조모형분석에 따르면, 디지털 역량,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디지털 조력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였다. 모바일 사회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디지털기기 이용태도와 디지털 조력에게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중집단비교모형분석에서는 모바일 사회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의 연령집단 간 차이가 드러났다. 고령 지체장애인의 경우 모바일 사회참여의 효과가 유의하였으나, 청장년 지체장애인의 경우 유의하지 않았다. 고령 지체장애인의 차별적 특성을 고려한 정보화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 지체장애인 모바일 사회참여 향상을 통한 생활만족도 증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고령지체장애인, 생활만족도, 모바일 사회참여, 매개효과, 다중집단 비교모형

* 본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3A2A01087152)

** 제1저자(rsh088@ltu.ac.kr)

*** 교신저자(chkim108@hanmail.net)

I. 서 론

최근 장애인구의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하면서, 장애와 노화의 이중위험을 경험하는 고령장애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고령장애인의 경우 노화에 따라 사회적 욕구는 증가하지만, 서비스 이용경험은 감소하는 서비스 역설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노승현 외, 2014).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활성화가 요구되며, 서비스의 방향은 활기찬 노후(active aging)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즉 고령 지체장애인의 건강위험 및 기능감퇴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적극적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증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노승현, 2018).

고령 지체장애인의 경우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물리적 및 환경적 장벽을 경험하며, 이러한 장벽은 활기찬 노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사회참여는 사회적 장벽을 넘어 고령 지체장애인의 사회참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로 인하여 온라인 사회참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의 온라인 사회참여는 온라인상에서 우정관계를 증진하여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Kim and Zhun, 2020), 고령자의 온라인 사회참여는 우울증을 완화하고 정신적 안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Ang and Chen, 2019).

온라인 사회참여 중에서 특히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사회참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사회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모바일기기 보유율은 2018년 76.1%, 2019년 76.9%, 2020년 84.8%였으며, 고령자의 모바일기기 보유율은 2018년 68.7%, 2019년 73.7%, 2020년 77.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일반국민의 모바일기기 보유율이 2020년 92.3%임을 감안할 때 장애인 및 노인의 모바일 기기 보유율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장애와 노화를 경험하는 고령장애인의 모바일 기기 기반 온라인 사회참여 증진이 필요하다.

고령장애인의 모바일 사회참여를 다룬 연구는 극이 일부(박경미, 김민아, 2019; 노승현, 2021; 노승현 외, 2022)에 그치고 있다. 박경미와 김민아(2019)는 중고령 지체장애인의 인터넷 활용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나, 모바일 사회참여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지 못한 한계가 있다. 한편 고령장애인의 모바일 사회참여 영향 요인(노승현, 2021), 고령 지체장애인의 모바일 정보활용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노승현 외, 2022)을 다룬 연구가 진행되어 고령지체장애인의 모바일 정보활용과 사회

자본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고령 지체장애인의 모바일 사회참여와 생활만족도의 관계는 살펴볼 수 없었던 한계가 있다. 비대면 사회 속에서 모바일 사회참여 활동이 고령 지체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고령 및 청장년 지체장애인의 디지털 역량,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디지털 조력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모바일 사회참여가 매개하는 효과를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청장년과 비교한 고령 지체장애인의 차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 집단 비교를 진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고령 지체장애인의 모바일 사회참여와 생활만족도

모바일 사회참여는 모바일 기반 인터넷 연결을 통하여 사회적 관심사 또는 정책평가, 민원제기, 봉사활동 등의 활동참여를 의미한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 최근 스마트기기의 보급 확산과 비대면사회의 확산으로 인하여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사회참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의 경우 청장년에 비해 온라인 사회참여(양정애, 장현미, 2014; 박은형, 2018) 수준이 낮은 결과를 보인다. 또한 장애인 은 비장애인에 비해 인터넷 이용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Helsper and Reisdorf, 2016; Dobransky and Hargittai, 2006). 장애와 노화를 동시에 경험하는 고령장애인의 경우 모바일 사회참여에서 배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노승현(2021)은 고령장애인의 모바일 사회참여 연구를 통하여 고령장애인의 경우 청장년이나 비장애 고령인구에 비해 모바일 사회참여 수준이 낮은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고령장애인의 모바일 사회참여 영향요인을 연구하여 모바일 사회참여 증진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노승현 외(2022)는 고령 지체장애인의 모바일 정보활용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고령 및 장애의 이중위험을 경험하는 고령장애인의 모바일 기기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고령장애인의 모바일 사회참여는 사회자본 증진과 함께 노년기 삶의 질 수준을 유지하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선행연구는 고령자 및 장애인의 모바일 사회참여가 생활만족도를 증진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지적한다. 즉 고령자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Wright, 2000), 컴퓨터 사용(Blit-Cohen and Litwin, 2005), 인터넷 이용(Chen

and Persson, 2010; Perkins and LaMartin, 2012), 디지털 정보활용(김반야, 권종실, 2022)은 생활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하데 기여하였다. 박경미와 김민아(2019)는 고령 지체장애인의 인터넷 활용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고령장애인의 인터넷 활용을 통한 생활만족도 증진방안을 제시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모바일 기기의 보급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모바일 사회참여와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청장년과 고령의 비교모형을 통한 고령 지체장애인의 차별적 특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2. 고령 지체장애인의 모바일 사회참여 및 생활만족도 영향요인

고령 지체장애인의 디지털 역량,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디지털 조력은 고령 지체장애인의 모바일 사회참여와 생활만족도를 예측하는 요인이다.

첫째, 디지털 역량은 모바일 사회참여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고령자의 경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모바일 기술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디지털정보화역량은 고령자의 디지털 정보활용(김효정, 이진명, 2018), 생활서비스 이용(신동윤, 김동욱, 2019), 장애인의 정보활용(연은모, 최효식, 2019), 고령 지체장애인의 모바일 정보활용(노승현, 2021)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역량은 생활만족도를 예측하는 요인이다. 장애인의 디지털역량(유나리, 김승완, 2020; 연은모, 최효식, 2020), 고령자의 모바일기기 이용능력(신동윤, 김동욱, 2019; 김수경 외(2020)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은모, 최효식(2019)의 연구결과, 장애인의 디지털역량은 디지털 정보활용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생활만족도를 예측하였다. 김수경 외(2020)의 연구에서 모바일기기 이용능력이 모바일 사회참여를 매개하여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신동윤, 김동욱(2019)은 중고령자의 모바일기기 이용능력이 생활서비스 수준을 매개하여 생활만족도를 예측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둘째, 디지털기기 이용태도는 모바일 사회참여와 생활만족도를 예측하는 요인이다. 고령자의 경우 노화로 인한 기능저하, 디지털 기기 구입비용 등으로 인하여 온라인 사회참여에 소극적일 수 있다(Lee, et al., 2011). 김수정 외(2020)는 고령자 연구결과 디지털 이용태도가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노승현(2021)은 고령장애인의 디지털 이용태도 긍정적일수록 모바일 사회참여 수준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디지털기기 이용태도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정 외, 2020; 엄사랑 외, 2021; 최아름, 박창민, 2020). 김수정 외(2020)는 중고령자의 디지털 이용태도가 온라인 네트워크와 디지털 정보생산 및 공유 활동을 매개하여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엄사랑 외(2021)는 5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디지털기기 이용태도가 정보활동을 매개하여 생활만족도를 증진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생활만족도 증진효과는 PC 정보활동에서 유의하지 않았으나, 모바일 기기 활용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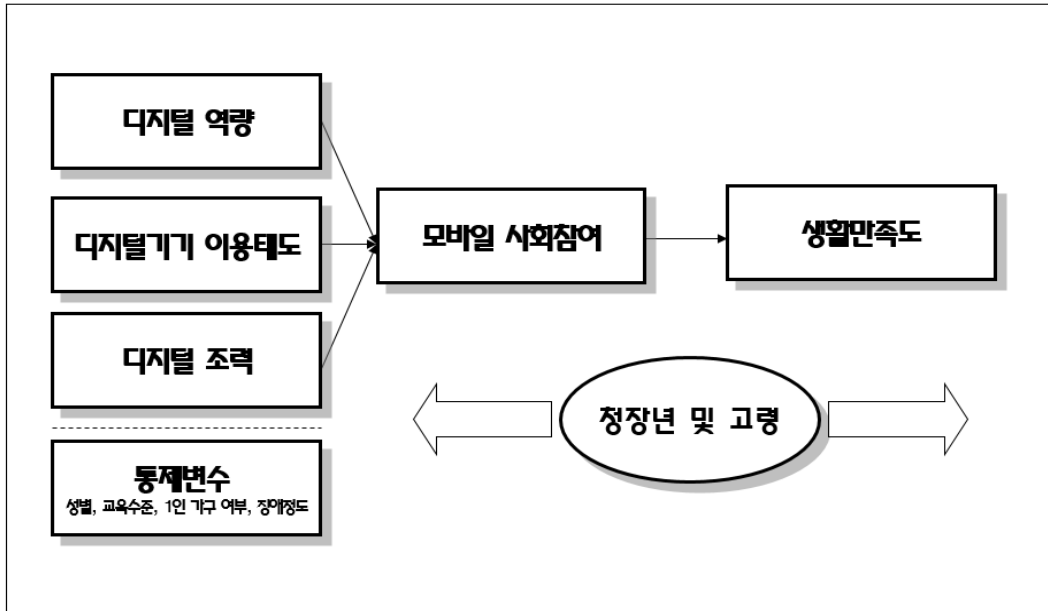
셋째, 디지털조력은 모바일 사회참여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고령 지체장애인의 경우 디지털 기기 이용과정에서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디지털 조력자는 자주 접촉하는 가족, 지인(McPherson, et al., 2001), 전문가의 공식적 지원(Courtois & Verdegem, 2016)을 포함한다. 고령자의 디지털 조력은 디지털 정보활용(김봉섭, 고정현, 2020), 정보의 질적이용(고정현, 2021)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지체장애인 연구(노승현, 2021) 결과, 디지털 조력이 모바일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중집단 비교결과, 고령 지체장애인의 경우 청장년에 비해 디지털 조력이 모바일 정보활용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령자(장은교, 이진명, 2021)의 디지털 조력 경험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본 연구는 통제변수로 성별, 교육수준, 1인 가구 여부, 장애정도를 포함하였다. 성별의 경우, 남성이 디지털정보 이용수준, 디지털 역량(노용환, 2009; 김희섭 외, 2014)이 높았으나, 여성의 정보서비스 이용수준(양정애, 장현미, 2014)이 높은 결과도 있다. 한편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모바일 기반 온라인 사회참여 수준이 낮았다(박은형, 2018). 1인 가구의 경우 정보서비스 활용(황현정, 황용석, 2017)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Ⅲ. 연구자료 및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의 외생변수는 디지털역량,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디지털조력이며, 종속변수는 생활만족도, 매개변수는 모바일 사회참여이다. 또한 청장년 및 고령에 따른 다중집단 비교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2. 자료 및 분석대상

본 연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수행한 2020년 정보격차실태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자료는 디지털정보격차해소의 추진성과 점검 및 정책방향 도출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수집한 자료이다. 이중 장애인 자료는 만 7-69세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체, 뇌병변, 청각, 언어, 시각장애 5개 유형을 대상으로 2,20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성, 연령, 장애유형, 광역지자체별 비례할당표집방법을 활용하여 2019년 9월-12월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2,200명 중 19세 이상의 지체장애인 1,399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55세 미만 537명, 55세 이상 862명을 포함하였다. 고령의 정의에 대한 선행연구의 견해가 다양하게 제기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조사에서 55세 이상을 고령으로 정의한 점을 고려하여 55세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3. 주요 변수

1) 종속변수 : 생활만족도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생활만족도이다. 생활만족도는 6개 항목에 대한 응답결과의 평균값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서 내 삶은 내 이상과 가깝다.', '내 삶의 조건들은 매우 우수하다.',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지금까지 나는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얻었다.', '내 삶을 다시 한다면, 나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생활만족도의 내적일치도는 Cronbach's $\alpha=.869$ 점이었다.

2) 매개변수 : 모바일 사회참여

본 연구의 매개변수는 모바일 사회참여이다. 최근 1년간 스마트폰을 활용한 사회참여 활동 참여정도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나는 인터넷을 통해 사회적 관심사(공공이슈)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한 적이 있다.', '나는 인터넷을 통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 정책제안이나 건의, 정책평가, 민원제기를 한 적이 있다.', '나는 인터넷을 통해 기부(금전/재능)나 봉사 활동을 한 적이 있다.', '나는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투표나 여론조사, 서명 등에 참여한 적이 있다.'의 평균 점수를 활용하였다. 1~4점으로 응답하도록 하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모바일 사회참여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모바일 사회참여의 내적일치도는 Cronbach's $\alpha=.856$ 점이었다.

3) 독립변수

(1) 디지털역량

디지털역량의 경우 PC활용능력, 모바일기기 활용능력과 인터넷 활용능력을 포함하였다. 먼저 PC활용능력은 PC를 활용하여 7개 항목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PC 활용능력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모바일기기 활용능력은 모바일기기를 활용하여 각 항목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7문항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모바일기기 활용능력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인터넷 활용능력은 컴퓨터나 모바일기기를 통해 각 항목별 활동을 수행할 수 있



는 능력을 의미하며, 7문항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모바일기기 활용능력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인터넷 활용능력은 바일기기를 활용해 각 항목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4문항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활용능력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PC 활용능력의 내적일치도는 Cronbach's α =.977점, 모바일 기기 활용능력의 내적일치도는 Cronbach's α =.948점, 인터넷 활용능력의 내적일치도는 Cronbach's α =.861점, 전체 디지털 역량 내적일치도는 Cronbach's α =.972점이었다.

(2)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디지털 기기 이용태도는 새로운 기술을 접할 때 자신감, 태도 등에 대한 문항으로서 6개 항목으로 측정하며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디지털 기기 이용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디지털 기기 이용태도의 내적일치도는 Cronbach's α =.912로 나타났다.

(3) 디지털조력

디지털 조력은 '가족 도움 요청', '친구 도움 요청', '지인 도움 요청', 인터넷 정보검색, 전문인력 이용을 포함하여 5문항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디지털 조력 점수가 높음을 의미한다. 디지털조력의 내적일치도는 Cronbach's α =.718점이었다.

4)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성별, 교육수준, 1인 가구 여부, 장애정도를 포함하였다¹⁾. 연령의 경우 55세 이상과 55세 미만으로 구분하여 고령 및 청장년 지체장애인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4. 분석방법

첫째, 본 연구는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변수의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조방정식 모형에 필요한 잠재변수와 관측변수를 검토하였다.

셋째, 외생변수인 디지털역량,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디지털조력이 생활만족도에 미

¹⁾ 남자=1, 고등학교 이상=1, 1인 가구=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1

치는 영향을 모바일 사회참여가 매개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결과들이 청장년 및 고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집단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결과를 아래에 제시하였다(표 1). 청장년 지체장애인의 경우 남자가 75.0%로 고령 지체장애인 남자 65.8% 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chi^2=13.371$, $p<.001$). 교육수준의 경우 청장년 지체장애인의 경우 고등학교 이상 비중이 81.4%로 고령 지체장애인 50.2% 보다 높았다($\chi^2=136.499$, $p<.001$). 1인 가구 비중의 경우 고령 지체장애인이 19.6%로 청장년 지체장애인 8.8%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chi^2=29.852$, $p<.001$). 장애정도의 경우 고령 지체장애인은 심한 장애의 비중이 38.9%로 청장년 지체장애인 32.8% 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chi^2=5.290$, $p<.021$).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청장년(n=537)	고령(n=862)	계	$\chi^2(df)/p$
성별 (n=1399)	여자	25.0%	34.2%	30.7%	13.371(1)*** .000
	남자	75.0%	65.8%	69.3%	
교육수준 (n=1399)	저학력	18.6%	49.8%	37.8%	136.499(1)*** .000
	고학력	81.4%	50.2%	62.2%	
1인 가구 여부 (n=1399)	2인 이상	91.2%	80.4%	84.6%	29.852(1)*** .000
	1인	8.8%	19.6%	15.4%	
장애정도 (n=1399)	심하지 않은 장애	67.2%	61.1%	63.5%	5.290(1)* .021
	심한 장애	32.8%	38.9%	36.5%	
계		100%	100%	100%	



2. 주요변수 기술통계분석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분석 결과를 아래에 제시하였다<표 2>. 고령 지체장애인의 경우 청장년 지체장애인에 비해 PC활용능력, 모바일활용능력, 인터넷활용능력, 디지털 기기 이용태도, 디지털조력, 모바일사회참여 수준이 낮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고령 지체장애인의 경우 청장년에 비해 생활만족도 수준이 낮았다.

<표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분석결과

변수	청장년(n=537)		고령(n=862)		t	p
	M	SD	M	SD		
PC활용능력	2.62	.884	1.89	.903	14.953***	.000
모바일활용능력	3.00	.712	2.28	.904	16.662***	.000
인터넷활용능력	2.39	.786	1.93	.749	11.066***	.000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2.58	.597	2.23	.649	10.238***	.000
디지털조력	2.69	2.041	2.58	1.888	3.590***	.000
모바일사회참여	2.04	.856	1.89	.842	3.081***	.000
생활만족도	2.37	.606	2.20	.588	5.249***	.000

3.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분석

주요변수 간 단순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아래에 제시하였다<표 3>. 전체적인 상관계수를 검토한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보이는 변수는 관찰되지 않았다.

<표 3>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분석

	1	2	3	4	5	6	7	8	9	10	11
청장년 (n=537)	1										
		2									
			3								
				4							
					5						
						6					
							7				
								8			
									9		
										10	
											11

	1	2	3	4	5	6	7	8	9	10	11
7	.079	.205**	-.105*	-.144**	.619**	.613**					
8	.130**	.240**	-.083	-.135**	.500**	.551**	.546**				
9	.075	.207**	-.063	-.077	.358**	.390**	.516**	.461**			
10	-.031	-.014	-.096*	-.034	.213**	.154**	.348**	.220**	.232**		
11	-.003	.118**	-.059	-.143**	.391**	.406**	.385**	.553**	.436**	.212**	
고령 (n=862)	1										
	2	.172**									
	3	-.038	-.140**								
	4	.023	-.158**	.176**							
	5	.207**	.139**	-.123**	-.077*						
	6	.202**	.186**	-.166**	-.113**	.696**					
	7	.110**	.169**	-.133**	-.124**	.566**	.635**				
	8	.182**	.200**	-.089**	-.146**	.426**	.501**	.539**			
	9	.029	.159**	-.072	-.108**	.279**	.298**	.594**	.462**		
	10	-.110**	.052	-.023	.006	.110**	.089*	.330**	.279**	.296**	
	11	.006	.183**	-.171**	-.170**	.346**	.380**	.391**	.483**	.392**	.322**

* 1. 성별, 2. 교육수준, 3. 1인 가구 여부, 4. 장애정도, 5. PC활용능력, 6. 모바일기기 활용능력, 7. 인터넷활용능력, 8.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9. 디지털조력, 10. 모바일 사회참여, 11. 생활만족도

4. 연구모형 분석결과

본 연구에 포함된 외생변수는 잠재변수 디지털 역량,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디지털 조력을 포함하였으며, 매개변수는 모바일 사회참여, 내생변수는 생활만족도를 포함하였다. 통제변수는 성별, 교육수준, 1인 가구여부, 장애정도를 포함하였다.

1) 측정모형검증

구조방정식 모형에 앞서 연구모형에 포함된 개념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아래에 제시하였다(표 4).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절대적합지수인 카이스퀘어(χ^2) 통계량과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가장 덜 받는 장점을 가진 RMSEA와 함께 증분적합지수인 TLI,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반영하는 CFI를 함께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χ^2 값은 1771.173(df=214)로 $p < .001$ 수

준에서 유의하였다. TLI는 .902, CFI는 .917로 모두 .90이상으로 적합하였다. RMSEA는 0.068, SRMR은 .059로 모형이 자료에 잘 적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측정모형의 적합도

모형	$\chi^2(df)$	χ^2/df	TLI	CFI	RMSEA	SRMR
Model Fit	1771.173(214)	8.277	.902	.917	.068	.059

측정모형 분석결과를 아래에 제시하였다(표 5). 구체적으로 경로계수를 보면, 모든 경로들이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요인부하량(표준화계수)도 모두 .50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성(C.R)도 1.965 이상으로 측정모형의 집중 타당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측정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B	β	SE	C.R.	p
디지털역량	→	DC1	1.000	.872			
디지털역량	→	DC2	1.000	.928	.023	43.787	***
디지털역량	→	DC3	.683	.723	.022	31.644	***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	AUSD1	1.000	.605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	AUSD2	1.238	.748	.057	21.890	***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	AUSD3	1.351	.816	.058	23.152	***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	AUSD4	1.233	.838	.052	23.515	***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	AUSD5	.996	.673	.062	15.978	***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	AUSD6	1.014	.646	.051	19.723	***
디지털조력	→	DH1	1.000	.349			
디지털조력	→	DH2	1.217	.457	.122	9.969	***
디지털조력	→	DH3	1.985	.716	.173	11.468	***
디지털조력	→	DH4	2.269	.779	.196	11.606	***
디지털조력	→	DH5	1.747	.590	.160	10.940	***
모바일사회참여	→	MSP1	1.000	.791			
모바일사회참여	→	MSP2	1.220	.951	.031	38.919	***

경로			B	β	SE	C.R.	p
모바일사회참여	→	MSP3	1.010	.856	.028	36.257	***
모바일사회참여	→	MSP4	.933	.754	.030	30.598	***
생활만족도	→	SS1	1.000	.779			
생활만족도	→	SS2	1.074	.737	.039	27.530	***
생활만족도	→	SS3	1.058	.722	.039	26.939	***
생활만족도	→	SS4	.953	.679	.038	25.148	***
생활만족도	→	SS5	1.043	.782	.035	29.380	***

2) 구조모형분석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를 아래에 제시하였다(표 6). 그 결과 χ^2 값은 1922.935(df=286)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TLI는 .901, CFI는 .920으로 모두 .90이상으로 적합하였다. RMSEA는 0.061, SRMR은 .053으로 모형이 자료에 잘 적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모형	$\chi^2(df)$	χ^2/df	TLI	CFI	RMSEA	SRMR
Model Fit	1922.935(286)***	6.724	.901	.920	.061	.053

이론적 모형의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비표준화계수, C.R.값과 함께 각 내생변수의 다중 다중상관계수(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를 아래에 제시하였다(표 7). 먼저 모바일사회참여를 내생변수로,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수준이 높을수록($B=.205$, $p < .001$), 디지털조력 수준이 높을수록($B=.604$, $p < .001$) 생활만족도 수준이 높았다.

생활만족도를 내생변수로, 디지털역량 수준이 높을수록($B=.103$, $p < .001$),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수준이 높을수록($B=.411$, $p < .001$), 디지털 조력 수준이 높을수록($B=.331$, $p < .001$), 모바일 사회참여 수준이 높을수록($B=.071$, $p < .001$) 생활만족도 수준이 높았다.

한편 표준화계수에 기초하여 변수들의 영향력을 비교하면, 모바일 사회참여를 예측



하는 변수는 디지털 조력($\beta=.240$), 디지털기기 이용태도($\beta=.157$)의 순이었다. 모바일 사회참여가 이들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10.5%였다. 생활만족도를 예측하는 변수는 디지털기기 이용태도($\beta=.407$), 디지털조력($\beta=.170$), 디지털역량($\beta=.158$), 모바일 사회참여($\beta=.092$)의 순이었다. 생활만족도 이들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42.0%였다.

〈표 7〉 이론적 모형 추정결과

경로	B	β	SE	C.R.	p	SMC	
디지털 역량 → 모바일사회참여	-.008	-.009	.034	-.227	.820	.105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 모바일사회참여	.205	.157	.054	3.795	***		
디지털 조력 → 모바일사회참여	.604	.240	.096	6.280	***		
성별 → 모바일사회참여	-.150	-.098	.042	-3.553	***		
교육수준 → 모바일사회참여	-.021	-.015	.042	-.509	.611		
독거여부 → 모바일사회참여	-.060	-.031	.054	-1.118	.263		
장애정도 → 모바일사회참여	.055	.037	.041	1.354	.176		
디지털 역량 → 생활만족도	.103	.158	.023	4.417	***		.420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 생활만족도	.411	.407	.040	10.191	***		
디지털 조력 → 생활만족도	.331	.170	.065	5.127	***		
모바일사회참여 → 생활만족도	.071	.092	.020	3.507	***		
성별 → 생활만족도	-.118	-.099	.029	-4.025	***		
교육수준 → 생활만족도	-.008	-.007	.029	-.286	.775		
독거여부 → 생활만족도	-.081	-.053	.037	-2.168	.030		
장애정도 → 생활만족도	-.078	-.069	.028	-2.791	.005		

3) 가설적모형의 효과분해 및 매개효과 검증

구조모형 변수들 간의 영향력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로 분해한 결과를 아래에 제시하였다(표 8).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하였다. 간접효과의 경우 디지털기기 이용태도와 디지털 조력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모바일 사회참여가 매개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8〉 가설적 모형의 간접효과 분석

경로	direct effect	mediating effect	total effect
	B(β)	B(β)	B(β)
디지털역량 → 모바일 사회참여 → 생활만족도	.103(.158)	-.001(-.001)	.103(.157)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 모바일 사회참여 → 생활만족도	.411(.407)	.015(.014)**	.426(.422)
디지털조력 → 모바일 사회참여 → 생활만족도	.331(.170)	.043(.022)**	.374(.192)

5. 고령장애인과 고령비장애인의 다중집단 비교모형 분석

1) 측정동일성 검증

측정동일성 검증을 위하여 비제약 모형과 제약모형 간 적합도 차이를 아래에 제시하였다(표 9). 비제약 모형인 모형1과 모형2의 경우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 측정동일성에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9〉 측정동일성 검증 결과

모형	CMIN	df	TLI	CFI	RMSEA	$\Delta\chi^2$
1 Unconstrained	2355.080	572	.902	.917	.047	
2 Measurement weights	2383.58	590	.902	.914	.047	$\Delta\chi^2(18)=28.50$
3 Structural covariances	3019.747	613	.900	.859	.050	$\Delta\chi^2(41)=590.651^{***}$
4 Measurement residuals	3273.294	628	.889	.852	.050	$\Delta\chi^2(56)=253.547^{***}$

2) 청장년 및 고령 지체장애인의 다중집단 모형검증 결과

청장년 및 고령 지체장애인의 다중집단 모형검증 분석결과를 아래에 제시하였다(표 10, 그림 2). 먼저 모바일 사회참여를 내생변수로, 청장년 지체장애인은 디지털조력 수준이 높을수록($B=.439, p<.001$), 모바일 사회참여 수준이 높았다. 고령 지체장애인의 경우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수준이 높을수록($B=.255, p<.001$), 디지털 조력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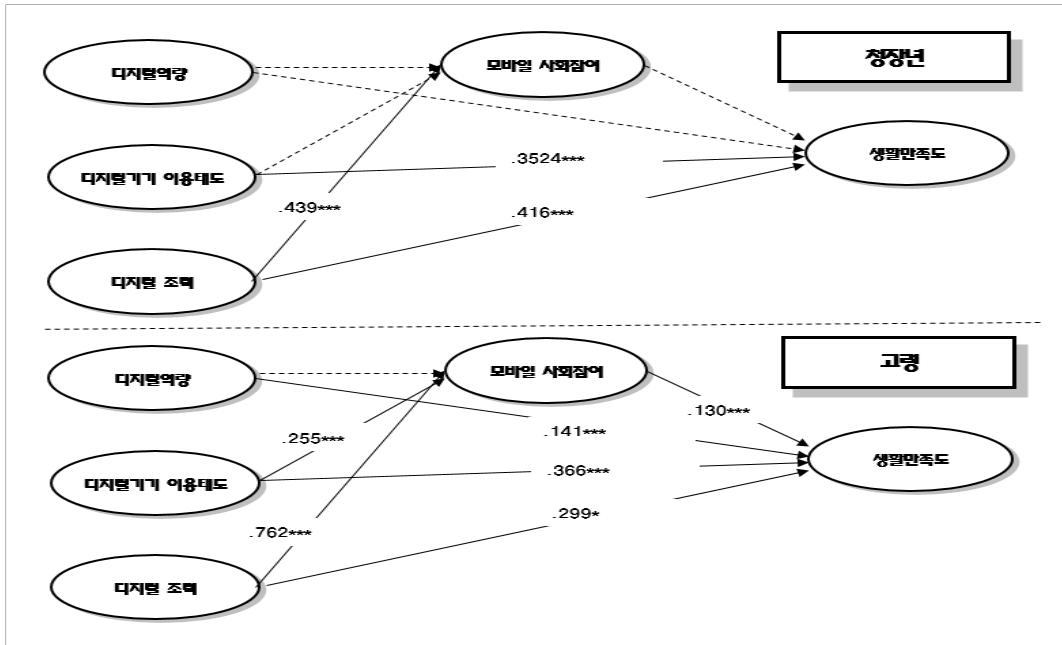
($B=.762, p<.001$)이 높을수록 모바일 사회참여 수준이 높았다.

생활만족도를 내생변수로 청장년 지체장애인의 경우,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수준 ($B=.524, p<.001$)이 높을수록, 디지털조력($B=.416, p<.001$)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고령 지체장애인의 경우 디지털역량($B=.141, p<.001$) 수준이 높을수록, 디지털기기 이용태도($B=.366, p<.001$) 수준이 높을수록, 디지털조력 ($B=.229, p<.05$) 수준이 높을수록, 모바일 사회참여($B=.130, p<.001$)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C.R.값의 차이를 보면, 청장년 및 고령 지체장애인의 차이가 유의한 경로는 모바일 사회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3.049)이었다. 즉 고령 지체장애인의 경우 모바일 사회참여가 생활만족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나 청장년 지체장애인의 경우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표 10〉 다중집단 비교결과

경로	청장년		고령		C.R. difference	
	B	C.R.	B	C.R.		
디지털 역량 → 모바일사회참여	.106	1.601	-.079	-1.896	-2.368	채택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 모바일사회참여	.083	.805	.255***	4.045	1.424	reject
디지털 조력 → 모바일사회참여	.439***	3.502	.762***	4.967	1.632	reject
성별 → 모바일사회참여	-.099	-1.355	-.171***	-3.344	-.812	reject
교육수준 → 모바일사회참여	-.182	-2.139	.018	.374	2.04	accept
독거여부 → 모바일사회참여	-.203	-1.781	-.022	-.368	1.4	reject
장애정도 → 모바일사회참여	-.008	-.109	.096	1.945	1.222	reject
디지털 역량 → 생활만족도	.065	1.528	.141***	4.659	1.448	reject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 생활만족도	.524***	6.973	.366***	7.593	-1.768	reject
디지털 조력 → 생활만족도	.416***	4.686	.229*	2.424	-1.442	reject
모바일사회참여 → 생활만족도	.005	.161	.130***	4.847	3.049	accept
성별 → 생활만족도	-.120*	-2.551	-.119**	-3.249	0.014	reject
교육수준 → 생활만족도	-.103	-1.881	.044	1.254	2.261	accept
독거여부 → 생활만족도	.024	-1.349	-.122**	-2.832	-.277	reject
장애정도 → 생활만족도	-.060	.326	-.095**	-2.682	-.615	reject



[그림 2] 다중집단 비교결과

V.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고령 지체장애인은 청장년 지체장애인에 비해 디지털역량(PC 활용능력, 모바일 활용능력, 인터넷 활용능력),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디지털 조력, 모바일 사회참여, 생활만족도가 낮은 결과를 보였다.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는 χ^2 값은 1922.935(df=286)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TLI는 .901, CFI는 .920, RMSEA는 0.061, SRMR은 .053로 모형이 자료에 잘 적합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먼저 모바일사회참여를 내생변수로,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수준이 높을수록($B=.205, p < .001$), 디지털조력 수준이 높을수록($B=.604, p < .001$) 생활만족도 수준이 높았다. 생활만족도를 내생변수로, 디지털역량 수준이 높을수록($B=.103, p < .001$),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수준이 높을수록($B=.411, p < .001$), 디지털조력 수준이 높을수록($B=.331, p < .001$), 모바일 사회참여 수준이 높을수록($B=.071,$

$p < .001$) 생활만족도 수준이 높았다. 간접효과 검증결과, 디지털기기 이용태도와 디지털조력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모바일 사회참여가 매개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청장년 및 고령 지체장애인 다중집단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모바일 사회참여를 내생변수로, 청장년 지체장애인은 디지털조력 수준이 높을수록 ($B = .439, p < .001$), 모바일 사회참여 수준이 높았다. 고령 지체장애인의 경우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B = .255, p < .001$), 디지털 조력 수준 ($B = .762, p < .001$)이 높을수록 모바일 사회참여 수준이 높았다. 생활만족도를 내생변수로 청장년 지체장애인은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수준 ($B = .524, p < .001$)이 높을수록, 디지털조력 ($B = .416, p < .001$)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고령 지체장애인의 경우 디지털역량 ($B = .141, p < .001$) 수준이 높을수록,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B = .366, p < .001$) 수준이 높을수록, 디지털조력 ($B = .229, p < .05$) 수준이 높을수록, 모바일 사회참여 ($B = .130, p < .001$)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구체적으로 청장년 지체장애인과 고령 지체장애인의 차이가 유의한 경로는 모바일 사회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3.049)이었다. 즉 고령 지체장애인의 경우 모바일 사회참여가 생활만족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나 청장년 지체장애인의 경우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2. 제언

첫째, 고령 지체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고령 지체장애인은 청장년에 비해 디지털 역량,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디지털 조력, 모바일 사회참여 수준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노승현, 2021)와 일치한다. 고령장애인은 장애 및 노인 서비스 모두에서 배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 2020년 경기도에서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22년 1월 현재 19개 시도에서 고령장애인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고령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증진을 위한 차별적 정책 및 지원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고령 지체장애인의 생활만족도 증진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고령 지체장애인의 디지털 역량,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디지털 조력, 모바일 사회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 청장년의 경우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디지털 조력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 디지털 역량(신동윤, 김동욱, 2019; 유나리, 김승완, 2020; 연은모, 최효식, 2019; 김수경 외, 2020), 디지털기기 이용태도(김수정 외, 2020; 엄사랑 외, 2021), 디지털 조력(장은교, 이진명, 2021; 노승현 외,

2022)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고령 지체장애인의 생활만족도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 개발과정에서 디지털 역량, 디지털 기기 이용태도, 디지털 조력, 모바일 사회참여 증진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고령 지체장애인의 모바일 사회참여 증진방안이 필요하다. 고령장애인의 모바일 사회참여는 오프라인 사회참여를 대체하여 생활만족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고령 지체장애인의 모바일 사회참여는 생활만족도 증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Wright, 2000; Blit-Cohen and Litwin, 2005; Chen and Persson, 2010; Perkins and LaMartin, 2012; 김반야, 권종실, 2022; 박경미와 김민아, 2019)와 일치한다. 특히 청장년 및 고령 지체장애인의 모바일 사회참여의 영향을 차별적으로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크다. 고령장애인 대상 정보화 교육과정에서 이론적 교육 및 실습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의 확산이 요구된다.

넷째, 고령 지체장애인의 차별적 특성을 고려한 모바일 기기 활용 정보화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고령장애인의 경우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디지털 조력이 모바일 사회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연구결과는 디지털 역량(김효정, 이진명, 2018; 신동윤, 김동욱, 2019; 연은모, 최효식, 2019; 노승현, 2021), 디지털기기 이용태도(김수정 외, 2020; 노승현, 2021), 디지털 조력(김봉섭, 고정현, 2020; 노승현, 2021) 관련 연구와 일치한다. 청장년의 경우 디지털 조력이 모바일 사회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정보화교육은 컴퓨터 활용, PC를 활용한 문서작성, 인터넷 활용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어 디지털 역량 중 PC 및 인터넷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다. 향후 모바일기기 활용을 고려한 정보화교육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정보화교육이나 노인정보화 교육 모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고령 지체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화교육 방안이 필요하다. 노승현 외(2018)은 지체장애인 활기찬 노후를 위한 장애인단체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지역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단체 등의 협력적 연계에 기초하여 모바일 사회참여 증진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고령 지체장애인의 디지털 기기 이용태도 개선방안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고령 지체장애인의 경우 디지털 역량 보다 디지털 기기 이용태도가 모바일 사회참여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경우 디지털기기에 대해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Lee, et al., 2011)를 고려할 때, 디지털기기 이용에 대한 호의적 태도 형성이 필요하다. 고령 지체장애인 정보화 교육내용에 디지털 기기 이용태도 증진을 위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기기 이용방법을 배우는 것을 넘어 구체적 활용방법을 중

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수 활용 사례에 대한 발굴 및 홍보노력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여섯째, 디지털 조력 서비스를 제안한다. 본 연구결과 디지털 조력의 경우 청장년 및 고령 지체장애인 모두 모바일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또한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도 유의하였다. 디지털 조력이 모바일 사회참여(김봉섭, 고정현, 2020; 노승현, 2021), 생활만족 (장은교, 이진명, 2021)에 미치는 영향 연구와 일치한다. 디지털 조력은 사회적 지지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고령 지체장애인의 사회적 지지체계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적극적 디지털 조력 서비스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내 디지털 전문가를 연계하여 고령지체장애인의 디지털 사회적 연계 서비스 제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고령장애인과 고령비장애인 간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고령장애인의 모바일 사회참여 영향요인을 청장년장애인과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향후 고령장애인과 비장애 고령인구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고령장애인의 차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고정현 (2021). 고령층의 정보의 질적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디지털 조력자 활용방식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5(3), 23-46.
- 김반야, 권종실 (2022). 디지털정보화와 일상생활만족도의 관계: 디지털기기 이용성과의 매개효과 분석. 정보화정책, 29(2), 91-105.
- 김봉섭, 고정현 (2020). 고령층 디지털 사회 자본에 대한 디지털 조력자 영향 연구: 디지털 정보 활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담론과 정책, 13(2), 27-57.
- 김수경, 신혜리, 김영선 (2020). 중고령자의 모바일기기 이용능력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모바일 기반 온라인 사회참여활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8(3), 23-34.
- 김수정, 윤희정, 이대겸, 신혜리, 김영선 (2020). 중고령자의 디지털 이용태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과 디지털 정보생산·공유활동의 직렬다중매개효과 분석. 한국노년학, 40(1), 131-146.
- 김효정, 이진명 (2018). 시니어 소비자의 모바일 디지털정보 활용의 결정요인. 2차적 디지털 격차를 중심으로. 가족환경연구, 56(6), 493-506.
- 김희섭, 이미숙, 서지웅 (2014). 고령층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정보이용행태 분석. 정보사회와 미디어, 15(1), 45-73.
- 노승현 (2021). 고령장애인의 모바일 사회참여 영향요인 연구-청장년장애인과 비교를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28(2), 81-97.
- 노승현, 김수진, 지윤경 (2014). 고령 및 준고령 발달장애인 그룹홈 지원방안 연구.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
- 노승현, 김정석, 광정란 (2022) 성인 지체장애인의 디지털 역량 및 디지털 조력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과 모바일 정보활용의 매개효과: 고령 및 청장년층 다중집단비교연구. 재활복지, 26(2), 55-76.
- 노승현, 정덕진, 황환 (2018). 경기도 고령장애인 활기찬 노후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의회·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 노용환, 김정언, 김원중 (2009). 컴퓨터와 인터넷 채택 및 이용의 결정요인 분석: 고령화와 정보격차에 대한 시사점. e-비즈니스연구, 10(4), 319-350
- 박경미, 김민아 (2019). 중고령 지체장애인의 인터넷 활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사회경제활동 참여의 조절효과 분석. 한국장애인복지학, 43, 99-131.
- 박은형 (2018). 온라인 시민참여의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연구-참여 형태별 정치자원의 영향



- 력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9(1), 187-210.
- 신승윤, 김동욱 (2019). 장노년층의 모바일기기 이용능력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모바일 기반 생활서비스 이용수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14(2), 227-267.
- 양정애, 장현미 (2014). 소비자의 인터넷 접근성 및 활용능력이 상품구매 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9(2), 160-190.
- 엄사랑, 신혜리, 김영선 (2021). 중고령자의 인터넷 이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향 점수매칭과 이중차이 결합모형을 이용한 분석. 보건사회연구, 41(4), 72-87.
- 연은모, 최효식 (2019).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역량,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 일상생활만족도 간 관계: 지각된 사회적 지지망 수준에 따른 다집단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12), 636-644.
- 유나리, 김승완 (2020). 장애인의 정보화 역량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중소기업융합학회, 10(9), 111-122.
- 장은교, 이진명 (2021). 기술 활용의지, 디지털 소외감, 조력자 경험이고령소비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9(10), 133-141.
- 최아름, 박창민 (2020). 지능정보사회에서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미래 지능정보 기술의 인지와 태도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8(2), 11-19.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황현정, 황용석 (2017). 노인집단내 정보격차와 그에 따른 삶의 만족도 연구: 가구구성형태 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4(3), 359-386.
- Ang, S., and Chen, T. Y. (2019). Going Online to Stay Connected: Online Social Participation Buffers the Relationship Between Pain and Depression, *The Journals of Gerontology*, 74(6), 1020-1031.
- Blit-Cohen, E., & Litwin, H. (2005). Computer utilization in later-life: Characteristics and relationship to personal well-being. *Gerontechnology*, 3(3), 138-148.
- Chen Y, Persson A. (2010). Internet use among young and older adults: relation to psychological well-being. *Educational Gerontology*, 28, 731-744.
- Courtois, C. and Verdegem, P. (2016). With a little help from my friends: An analysis of the role of social support in digital inequalities. *New Media & Society*, 18(8), 1508-1527.
- Dobransky, K., and Hargittai, E. (2006). The disability divide in Internet access

- and use.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9(3), 313-334.
- Helsper, E and Reisdorf, B. C. (2016). The emergence of a "digital underclass" in Great Britain and Sweden: changing reasons for digital exclusion. *New Media & Society*, 1461-4448.
- Kim, H. C., and Zhun, Z. Y. (2020). Improving Social Inclusion for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The Roles of Mobile Social Networking Applications (MSNA) by Disability Support Organizations in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7), 1-15.
- Lee, B., Chen, Y., Hewitt, L. (2011). Age differences in constraints encountered by seniors in their use of computers and the Internet.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7(3), 1231-1237.
- McPherson, M., Smith-Lovin, L., and Cook, J. M. (2001). Birds of a Feather: Homophily in Social Network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7, 415-444.
- Perkins, E. A., LaMartin, K. M. (2012). The Internet as social support for older carers of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Journal of Policy & Practice in Intellectual Disabilities*, 9(1), 53-62.
- Wright, K. (2000). Computer-mediated social support, older adults, and coping. *Journal of Communication*, 50(3), 100-118.

Life Satisfaction Factors and Mediating Effects of Mobile Social Participation among the Adults with Physical Disability: Multi-Group Comparison between Young/Middle and Older Adults

Roh, Seung-Hyun

Dept. of Social Welfare, Luther University

Kim, Cheong-Seok

Dept. of Sociology, Donguk University

Jeon, Boyoung

Dept. of health and medical information, Myongji College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how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adults with disability is affected by digital competency, digital device usage attitude, and digital assistance, and how mobile social participation has a mediating effect in this relationship. In addition, through a comparative study of the elderly and young/middle adults, we examined the differences in the mechanism within the adult group. The analysis was conducted on 1399 adults with physical disabilities who responded to the 2020 Digital Gap Survey. The preliminary analysis shows that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had significantly lower levels of digital competency, digital device usage attitude, digital assistance, mobile social participation, and life satisfaction than their younger counterparts. According to the structural model analysis, life satisfaction was directly influenced by digital competency, digital device use attitude, and digital assistance. The mediating effect of mobile social participation on life satisfaction was significant for digital device use attitude and digital assistance. In the multi-group comparison model analysis, the difference between age groups in the effect of mobile social participation on life satisfaction was revealed. For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the effect of mobile social participation was significant. However, it was

not significant for the younger adults with disabilities. This emphasizes the need to reflect the differenti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in information education for the disabled. Therefore, this study presented a strategy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through improving mobile social participation for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 **Key words** :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ies, life satisfaction, mobile social participation, mediating effect, multi-group comparison model

논문투고일 : 2022. 10. 14.

논문심사일 : 2022. 12. 1.

게재확정일 : 2022. 12. 6.